

총의치의 교합채득



송 광 업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보철과 교수)

-
- 1981.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1981~1984.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보철과 전공
 - 1992.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대학원 (박사)
 - 1987~현재.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보철과 교수
 - 1995~1996. 미국 Oregon Health Sciences Univ 치과대학 교환교수

총의치의 교합관계기록은 크게 수직교합고경의 결정과 수평악간관계의 기록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무치악 환자를 위한 상하악의 수직고경을 설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방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비교한 연구가 아직 미흡하여 교합 수직고경을 결정하는 데 어떠한 과학적인 기준이 아직은 없다.

여러 가지 방법 중 상하악의 수직관계를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기계적 방법은 발치전 기록과 계측치 및 치조제 평형관계 그리고 기타의 방법이 포함된다. 생리적 방법은 교합확립을 위한 안면고경의 설정 방법으로 생리

적 안정위, 발음, 심미성 및 편안감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다.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 여러 문헌과 임상과정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수평악간 관계에 대한 개념, 정의와 인기 방법에 대한 문헌은 매우 광범위하다. 민감한 부분에 대한 여러 견해차이가 있지만 총의치 제작에 있어서 중심위의 올바른 인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일치된 견해들이 많다. 중심위 기록에 최상의 방법은 없지만 의치제작 전 과정을 통해 임상적인 검사와 재검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으로 교합이 이러한 위치와 조화를 이루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역시 문헌과 임상과정을 통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